

## 제7장 감리교회 목회자

강명석 전도사는 신학교(일본 간세이 가쿠인대학) 졸업 6개월이 되던 1927년 9월 8일(토) 조선 미(남) 감리교회 제10회 연회에 참석하였다. 그의 연회 참석은 신학교 졸업 후 최초로 참석한 공적 모임이었다. 이때 그는 신학교 입학 전에 출석했던 종교감리교회(담임 홍중숙 목사)의 부담임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다. [『기독신보』(1927.9.21.), 3.] 그리고 1년 후인 1928년 9월 5일(수) 제11회 연회에서 종교감리교회를 사임 하고, 춘천 지방으로 파송을 받으므로 정식 목회자가 되었다. 이러한 그의 사역에 대하여 『종교교회사』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경남 밀양 출신인 강명석은 종교교회에 청년 교인으로 출석하던 1922년부터 『기독신보』에 주일학교운동과 종교철학, 성서 개론 등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으며 1925년 남 감리회 전도인으로 목회를 시작하였고 일본의 남 감리회 계통 간세이 가쿠인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돌아온 1927년 9월부터 종교교회 전도사로 활동하였다. 그 후 1928년 9월 정식 전도사로 임명을 받은 후 경기도 가평구역에서 목회하다가...” [『종교

교회사』, 252.]

강명석 전도사는 1928년 9월 5일(수) 제11회 연회에서 춘천지방 경기도(京畿道) 가평군(加平郡) 가평읍감리교회[加平邑監理教會, 현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보납로 5 (읍내리 504-1) 가평중앙감리교회] 담임 전도사로 파송 받아 취임하므로 최초로 담임목회를 시작하였다. 아울러 농촌인 가평지역 교회들을 돌보거나 교회개척을 준비하는 가평선교구역장 사역도 병행하였다. [『기독신보』 (1928.9.12.), 4.] 이때 그는 『청년』이라는 잡지에 「都會(도회)와 農村(농촌)」이라는 글을 기고(寄稿)하였다. 그는 이글에서 농촌과 도회지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농촌으로 사역하러 온 후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다.

“농촌 사람은 도회지로 간다. 남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간다. 장년(長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유년(幼年)도 간다…. 그러나 나는 그와 정반대로 도회지에서 농촌으로 왔다. 농촌 중에도 험한 농촌에 왔다. 내가 농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도회지 사람과 농촌 사람을 서로 비교해 본 일이다…. 도회지 사람은 강도요 각쟁이 같았고 농촌 사람은 세상을 초월한 성자 같았고 천진난만(天真爛漫)한 유아 같았다. 그들의 말이 그러하고, 표정이 그러하고, 행동이 그러하였다.

도회지에 있을 때는 나도 강도 같은 느낌이 있었고, 각쟁이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농촌에 온 후로는 나도 성자 같은 느낌이 있고, 천진난만한 유아 같은 느낌이 있다…。 도회지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다. 농촌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다. 도회지 사람은 약탈자이다. 농촌 사람은 피 약탈자이다.” [강명석(1928.9.), 「都會(도회)와 農村(농촌): 二重掠奪(이중약탈) 당하는 農村(농촌)」, 『청년』, 29~32.]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는 사회적으로 폐단(弊端)이 생기게 하는 풍습인 폐습(弊習) 즉 나쁜 버릇이나 죄의식이 없이 자행되는 습관들과 부딪혀야만 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사회개혁 차원에서 범 교회적으로 사회개혁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이를 ‘구습타파운동(舊習打破運動)’이라고 한다. 그리고 구습타파운동은 ‘남녀차별제도, 축첩제도, 조혼제도, 도박(賭博), 마약(癮藥), 담배, 음주(술), 미신(迷信)’ 타파 등으로 나타났다. [서정민(2003), 『한국교회사 이야기(상)』, 말씀과 만남, 96~114.]

특히 우리나라에 조혼제도가 유행하게 된 이유는 첫째, 계속되는 외적의 침범에 대한 걱정과 전쟁으로 인해 몽골족[몽골계 민족, 몽골족 언어를 사용하는 동아시아계 민족 집단]과 북방 민족[동아시아 북방지역을 지배하였던 노족, 선비족, 거란족, 몽골족, 여진족]에게 여자들이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둘째, 영아 사망률이 높고,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일찍 혼인을 시켜 아들을 생산하고자 하는 염원 때문이었다. 셋째, 1911년대에는 일제 조선총독부에서 혼인세를 징수한다는 것과 일본인들이 조선 여자들을 빼앗아 간다는 유언비어 때문이었다. [서정민, 『한국교회사 이야기(상)』, 100.]

조혼제도는 대한제국 때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도 조선 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었던 하나의 폐풍(弊風)이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폐해(弊害)가 되는 풍습인 조혼제도의 잘못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널리 알리면서 교인들을 계몽(啓蒙)하였다. (1) 조혼은 민족을 인정 없는 모진 사람으로 만든다. (2) 조혼은 민족을 무식하고 판단력이 부족하게 만든다. (3) 조혼은 부모의 강압적인 결정으로 하기에 부부간에 사이 좋게 지내지 못하게 만든다. (4) 조혼은 민족을 음란하고 방탕하게 만들며, 행동이 막되고 문란한 유행과 풍습에 빠지게 만든다. (5) 조혼은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 남녀가 음란한 짓과 술의 해악과 도박에 빠지게 만들고 행실이 좋지 못한 짓을 하게 한다. (6)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해 조혼은 민족을 멸망하게 한다. [『한국교회사 이야기(상)』, 101.]

이러한 시대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강명석 전도사는 가평읍감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때인 1929년 7월

13일(토) 29세에 금반지(18금)를 폐물로 준비하여 울산으로 내려가 결혼식을 올렸다. 신부는 8세 연하인 21세의 이명신(李明信)으로 그녀의 이름은 넷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호적(戶籍) 이름은 이차순(李且巡)이었으나, 공적인 문서에서는 李仁喆(이인철)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일명(一名) 이성출이라고도 했는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이명신으로 사용하였다. [강경태(강명석의 유복자- 아들) 증언, 2008.4.24.]



강명석 목사 부부

이명신은 1908년 6월 15일(월) 경남(慶南) 울산군(蔚山郡) 울산읍(蔚山邑)에서 이영수(李永守)와 전란(田蘭) 사이에서 태어났다. [호적에는 1909.2.16. 출생으로 되어 있다] 그녀는 1915년 4월 울산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하였으며, 1919년 3월 졸업하였다. 그리고 그해 4월 부산 일신여학교에 입학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한 후 1923년 3월 졸업하였다. 이어 경성으로 유학을 떠나 그해 4월 ‘중앙유치원 사범과’[中央幼稚園 師範科, 중앙보육학교(中央保育學校)]에 입학하였으며, 1927년 3월 졸업하였다(제4회). [강경태 증언, 2008.4.24.; 중앙유치원 사범과 제4회 졸업사진]



이인철(이명신) 졸업사진, 두 번째 줄 왼쪽 첫 번째

‘중앙유치원 사범과’(중앙대학교 사범대학(中央大學校 師範大學) 전신)는 경기도 경성부 인사동 194-4번지의 중앙감리교회(中央監理教會)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1922년 9월에 설립한 3년제 전문학교(대학)를 말한다.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5 하나로빌딩] 설립 동기는 일제강점기 시절 지도층 인사들이 항일운동의 한 방법으로 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독립이라는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 학교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아닌 조선인들이 세운 민족학교이

다. [중앙대학교(2006), 『2006 중앙대학교 요람』, 31.]



전주 YWCA 앞줄 오른쪽 세 번째 이명신 사모, 전주서문교회 100년사

이명신은 1927년 3월 ‘중앙유치원 사범과’ 졸업 후 전주(全州) 서문밖교회 부설 전주유치원(全州幼稚園) 정규 교사로 부임하여 1929년 7월 혼인 직전까지 근무하였다. [전주유치원은 현 전라북도(全羅北道) 전주시(全州市) 완산구(完山區) 전주천동로 220(다가동 3가 123) 전주서문교회(全州西門教會)에 있었다. 예장 합동] 또한, 그녀는 서문밖교회 유년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 부설 전주야학교(全州夜學校)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또한, 전주여자기독교청년회[全州女子基督教青年會, 전주 YWCA] 창립위원, 사회부 위원, 그리고 근우회(槿友會) 전주지회 위원회 조사부 위원으로 활발하게 유치원 교사 및 교회 사역과 사회활동 나아가 항일구국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여성 지도자였다. [전주서

문교회 100년사편찬위원회(1999), 『전주서문교회 100년사』, 쿤란출판사, 301~303, 320; 『동아일보』(1927.8.24.)]

근우회는 신간회(新幹會)의 자매단체로 1927년 5월 27일(금) 경성 조선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朝鮮女子基督教青年聯合會,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 of Korean, 조선 YWCA] 강당에서 창립된 여성 항일구국운동(抗日救國運動) 및 '여성 지위 향상 운동단체'를 말한다. 이 단체는 기독교 민족주의 여성 운동계의 김활란[金活蘭, 1899.~1970.], 유영준[劉英俊, 1892.~?], 유각경[兪珪卿, 1891.~1966.], 최은희[崔恩喜, 1904.~1984.], 현신덕(玄信德) 등과 사회주의 여성 운동계의 박원민(朴元玫), 정종명(鄭鍾鳴), 주세죽(朱世竹), 정칠성(丁七星), 이현경(李賢卿) 등이 주축이 되어 여성의 굳은 단결과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운동을 전개하려는 취지로 창립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근우회; 『위키백과사전』, 근우회]

먼저 근우회의 강령(綱領)은 '조선 여자의 단결을 굳고 단단하게 하며, 조선 여자의 지위 향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힘을 쓰는데 두었다. 다음으로 근우회 운동의 목표는 여성의 지위를 부정하는 봉건제도[封建制度, feudalism]의 특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의 굴레와 일제 침략으로부터의 해방을 제시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근우회; 『위키백과사전



』, 근우회] 그리고 근우회의 실천 강령으로 9가지를 제시하였다.

(1) 여성에 대한 교육 차별철폐 및 보통교육 확장, (2) 여성에 대한 봉건적, 사회적, 법률적 일체의 차별철폐, (3) 모든 봉건적인 인습(因習)과 미신타파, (4) 조혼제도 폐지 및 혼인과 이혼의 자유, (5) 인신매매(人身賣買) 및 관청의 허가를 받고 매음(賣淫)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여자를 인정하는 공창제도(公娼制度) 폐지, (6) 농민 부인들의 경제적 이익 옹호(擁護), (7) 부인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철폐 및 출산 전과 출산 후 2주간의 휴양과 임금 지급, (8) 공장 노동자인 부인과 소년의 위험한 노동 및 야간작업 폐지 (9)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근우회]

강명석 전도사는 혼인 2개월이 되어가던 1929년 9월 4일(수) 조선 미(남) 감리교회 제12회 연회에 참석하여 ‘집사목사’[執事牧師, 현 준회원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기독신보』(1929.9.10.), 5.] 그런데 강명석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도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목사라고 불러도 달라고 요청하여 목사로 불림을 받았던 가짜 목사[거짓 목사, fake minister]였던 시절이 있었음을 9년 후에 고백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도 가짜(거짓)를 부칠 수 있

는 명칭이 많이 있는 줄 안다. 가짜 사도도 있을 것이요, 가짜 선지자, 가짜 장로, 가짜 집사, 가짜 신자 등도 있을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면 필자 자신이 가짜(거짓) 목사가 한번 된 일이 있었다. 감리교회의 규칙은 안수를 받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목사라고 부를 수도 없다. 그런데도 내가 시무하는 교회(가평읍감리교회)의 교인들에게 나를 목사라고 불러도 무관하니 목사라고 불러 달라고 청을 하므로 교인들이 필자를 목사라고 불렀던 일이 있다. 그때의 필자는 속일 수 없는 가짜(거짓) 목사(假牧師)였다.” [강명석(1938.9.), 「假先知者(가선지자)」, 『青年(청년)』, 12~13.]



강명석 목사(1929년)

강명석은 1929년 9월 4일(수) 목사 안수를 받음과 동시에 양주삼 목사의 권면으로 미국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가평읍감리교회를 사임하였다. 그리고 본처목사

(本處牧師)로 파송을 받아 조선 미(남) 감리교회 선교부에서 1930년 6월까지 근무하였다. [본처목사관 감리교회만 있는 독특한 제도의 하나로 교회를 담임하지 않고 휴직 중인 목사를 일컫는 말이다.] 이때 갓 결혼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명신 사모는 울산 친정(親庭)으로 내려가 근우회 울산지회에 근무하면서 항일운동과 여성운동에 참여하였다. [근우회 울산지회 직원 사진]

강명석 목사는 1930년 6월부터 1932년 2월까지 현재는 북한 지방인 강원도(江原道) 김화군(金化郡) 김화읍감리교회(金化邑監理敎會) 담임목사로 사역하였다. [유관지(2011.4.7.), 「김화읍감리교회, 북한교회연구원.」 그는 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 1930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협성신학교(協成神學校)에서 개최된 조선 미(남·북) 감리교회 통합총회에 참석하였다. [서재룡(2021), 『한국교회사』,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연구소, 64.] 협성신학교는 1887년 미(북) 감리교회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 신학교인 신학회(방문신학교)를 모체로 1907년 미(남·북) 감리교회가 연합으로 설립한 감리교신학교로 감리교신학대학교[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監理敎神學大學校]의 전신이다.

강명석 목사는 ‘장로목사’[長老牧師, 현 정회원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지만, 연회의 완속회원(完屬會員) 즉 장로목사로 자격을 인준받아 남·북 감리교회 통합총회

에 참석하였다. [『기독신보』(1930.10.1.), 4.] 통합총회는 교단 명칭을 ‘기독교 조선감리교회[基督教 朝鮮監理教會, The Korea Methodist Church]’라고 하였으며 양주삼 목사를 초대 총리사[總理師, general superintendent]로 선출하였다. [총리사는 오늘날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의 행정 수반인 감독 회장에 해당하는 초창기의 직책을 말한다.]

강명석 목사는 김화읍감리교회 시무 기간인 1931년 3월 2일(월)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유학의 길을 떠났는데, 이를 강명석의 제1차 도미라고 한다. 그는 일본 요코하마(横浜)에서 일본 우선회사(郵船會社)의 ‘탓수타마루’라는 배편으로 3월 24일(화) 출발하여 4월 8일(수)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항에 도착하였다. [『동아일보』(1930.1.2.; 『신한민보』(1931.4.9.)] 그러나 질병을 이유로 송환(送還)조치를 당하므로 1931년 4월 말 혹은 5월 초쯤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귀국한 후 김화읍감리교회로 되돌아가 사역하였다. [『신한민보』(1931.4.16.)]

강명석 목사는 1932년 3월 16일(수) 조선감리교회 제2회 연합연회에 참석하여 김화읍감리교회를 사임하였다. 그러자 연회는 그를 경성지방 경기도 양평(楊平)구역 의정부중앙감리교회(議政府中央監理教會) 담임목사로 파송하였다. 그는 3월 20일 주일부터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제2차 도미 직전인 1932년 7월까지 시무하였다. [의정부중앙감리교회 연혁.] 여기서 의정부중앙감리교

회가 감리교회에서 강명석의 마지막 사역이다 보니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긴 것 같다.

“1889년 10월 13일 경남 마산(밀양 오기)에서 출생한 강 목사는 1927년 일본 관서학원대학[關西學院大學, 간세이 가쿠인대학] 신학부를 마친 후 1929년 남감리회 선교회(연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고 1930년에서 1932년까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본 구역으로 부임했으나 곧 사임했다는데 후에 그의 활동이 감리교회 역사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교역 선상에서 퇴임하고 만 것 같다.” [『의정부중앙감리교회80년사』(1986.9.25.), 178.]